

朝鮮時代 袍의 소매에 관한 研究

金 榮 子

〈崇義女子專門大學 助教授〉

目 次

I. 서 언	6. 도포의 소매
II. 소매의 성격	7. 반비의 소매
III. 포의 소매에 대한 고찰	8. 구의의 소매
1. 악학궤범의 무복 소매	9. 주름포의 소매
2. 철릭의 소매	10. 동달이의 소매
3. 직령포의 소매	11. 심의의 소매
4. 창의의 소매	12. 기타의 포
5. 중치막의 소매	IV. 결 어

I. 서 언

이제까지의 한복 연구가 선배들의 노고에 의하여 복식사를 정립하는데 치중되었고 이러한 연구는 얼마간 달성되려는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국민에게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받아들여지는 복식의 감각은 다소 거리감이 있게 텔레비전 등에 의하여 표현되기도 한다. 이는 당시의 복식 역사를 종류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알맞게 입혀지는 의복 하나의 구성적 특징 변화를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필자는 복식 연구의 과제로서 소매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몇 편의 논문을 집필한 바 있다.¹⁾

이는 2,000년 동안 별로 변화가 없는 한복에 있어 소매의 변화는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한복의 기본 구조는 바지 저고리 그리고 포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 표면에 나타난 복식의 전형으로 고구려 벽화에서 상당히 진보된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우리 복식의 관두의 (貫頭衣)였으리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이 근거로 이 바지 저고리가 대륙적 기마민족의 전형적인 복식의 형태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바이칼 호 부근의 스키타이 문화와, 몽고 노인 우라의 기원1세기의 바지 저고리 모형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지역이 기마민족 문화로 형성된 특징 등의 공통점을 관련지어 보면 이들의 관계를 횡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매는 의복을 상하로 분리하였을 때 상의에서 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기능상 활동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한대 지방의 기후로 보온을 위하여, 또는 풍토적인 여건이나 대륙적 상무의 기질이 표방하는 호전적인 민족복의 기능성을 필요로 하는 협수(狹袖)가 자연히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그 뒤 2,000년 동안 한국복식의 기본형으로 계속 이어져 왔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런데 상고시대 고구려 벽화의 인물은 대부분 광수포(廣

1) 필자, 한복 소매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연구 19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 고구려 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 복식의 소매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제 29, 1984.호

袖袍)의 소매에 착수(窄袖) 저고리를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 형태 위에 또 다른 변화 요인이 가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대로부터 우리나라는 항상 지리적인 조건으로 대륙으로부터 정치적 간섭이 끊기지 않았으며, 이와 더불어 문화에 다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복식은 인간의 의식주의 기본이 되는 것인 만큼 더욱 빠르게 침투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의복의 전형인 광수소매에 비하면 우리의 복식은 착수형이다. 그런데 이 중국적인 요소가 특히 지배계급에 수용되었고 서민은 이와 관계 없이 국속의 착수형 의복을 착용하여 이 광수와 착수의 공존(共存)은 조선말기까지 이중구조(二重構造)를 이루면서 존속되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양반의 의복의 주된 것은 광수이며 착수는 일반 서민의 의복의 주된 형태였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도 지금까지 역사적인 관계의 단편적인 면으로 추정해온 것이나 이 변화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고찰이 행해져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비록 소매는 의복의 전체로 보면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시대마다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중시하여 과연 사회와 어떠한 관련이 있나를 알아 보기 위하여 다음은 문헌과 실물을 연결하여 변화의 양상을 고찰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의복의 고찰에 있어서 형태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 변화의 요인을 찾는 실증적 연구로도 가치가 있으며 한복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참고 자료는 조선조 실록을 위시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실지 의복을 파악할 수 있는 회화나 초상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복식, 출토복식을 연결지어 고찰할 것이다.

II. 소매의 성격

여기서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소매의 특성이 의복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성격이 어떠한가를 약술하려 한다. 이는 일반적인 내용이 될지 모르나 다음 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이미 발표한 필자의 「조선시대 여자 저고리 소매에 관한 연구」²⁾와 다소 중복되는 점도 있으리라 본다.

소매는 의복의 구성상으로 볼 때, 인체의 사지(四肢) 중에 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의복을 제작할 때 몸판에 다는 것이 보통이나, 이것을 다는 방법은 서양복과 한복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소매를 달지 않는 의복도 있어, 상의에는 소매가 꼭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소매를 달아 입는 원인을 크게 분류하면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온을 유지하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함과, 기후조절을 위한 보온과 위생등의 기능적인 목적이 있으며,

둘째, 장식적인 의미로 인간의 심미성의 표현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더욱 아름다워 보려는 미의식에 대한 본능적인 목적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동 서양을 막론하고 복식의 변천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남은 의복의 종류를 가리는 기준이 될 만큼 대단하다. 서양의 중세 복식중 고딕 시대의 우뿌랑드(Houppelande)의 소매는 마치 박쥐 날개처럼 거대하고 너풀거리며, 르네상스 시대는 소매에 또다른 장식 소매를 덧대는 등의 장식 과잉으로 사치를 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경향은 우리의 복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와같이 동서양의 귀족계통이 서민의 것보다 소매가 길고 크고 넓게 입었던 사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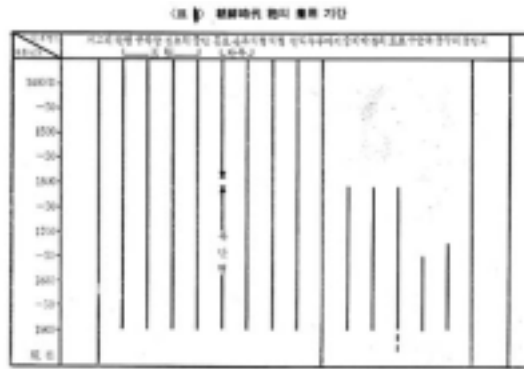
이러한 원인은 소매가 인간의 능동적인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손으로 의사 표시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분마저도 나타날 수

2) 김영자, 조선시대 여자 저고리 소매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 제 13 집, 효성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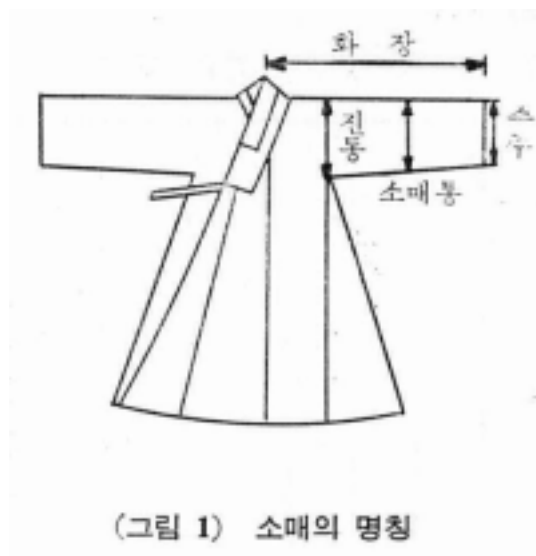
있을 정도로 인간의 감정이 표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넉넉하고 긴소매는 일종의 권위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는 육체적인 일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성과 관련되어, 귀족 의식을 과시할 수 있는 이유도 있었으리라 보인다. 특히 동양인은 손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데서 활수(濶袖), 긴소매 [장수(長袖)]가 관리의 의복으로, 상층계의 전형적인 것으로 되었던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은 소매의 명칭을 중국적인 개념의 한자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 거(袂), 소매의 입
 - 표(標), 소매의 끝
 - 매(袂), 소매통
 - 타(橈), 소매없는 옷
 - 액(掖), 진동으로 겨드랑 솔기
 - 각(裕), 소매와 몸통이 맞 붙는 겨드랑이 밑의 합쳐진 곳으로 소매 혼솔
- 다음은 현재 한복의 구성상 사용하고 있는 소매의 위치이다. (그림 1)
- 화장, 뒷 목뼈에서 어깨팔을 지나 소매의 끝까지 길이
 - 진동, 몸판과 소매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소매가 달려지는 부분의 길이
 - 소매통, 소매의 넓이
 - 수구, 소매의 부리 부분의 트임 부분
- 등으로 불리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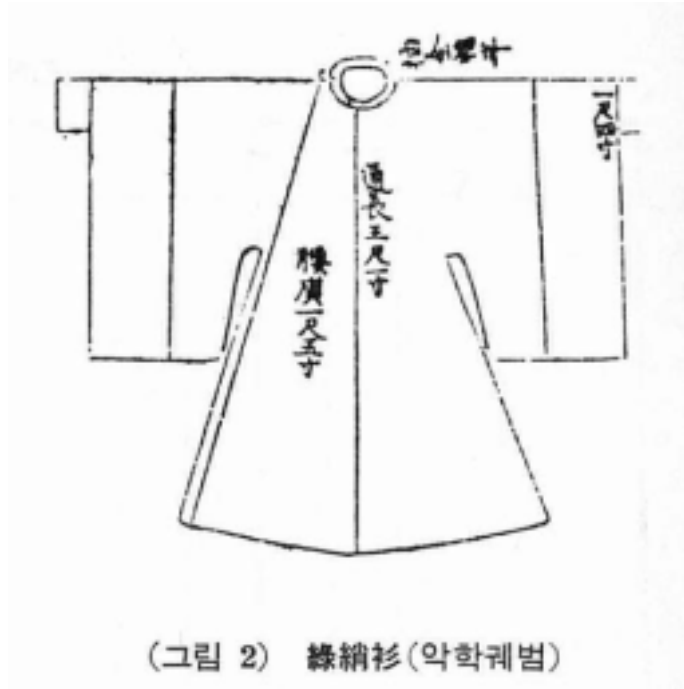
<표 1> 朝鮮時代 袍의 着用기간



(그림 1) 소매의 명칭

(그림1) 소매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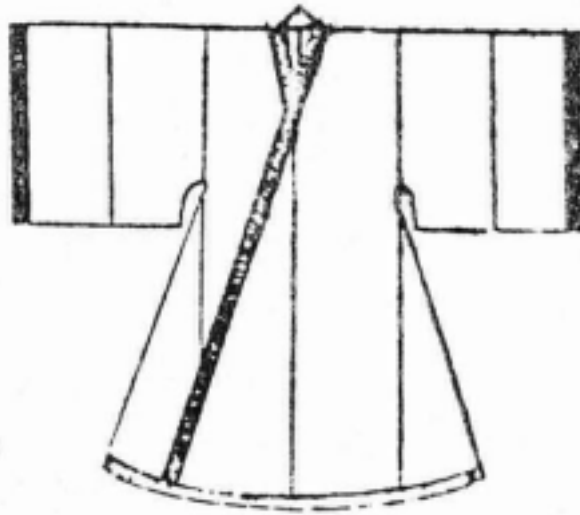
3) 손경자, 김영숙 공저, 한국복식사 자료선집, 권3, 1984, p. 454.



(그림2) 녹초삼(綠綃衫) (악학궤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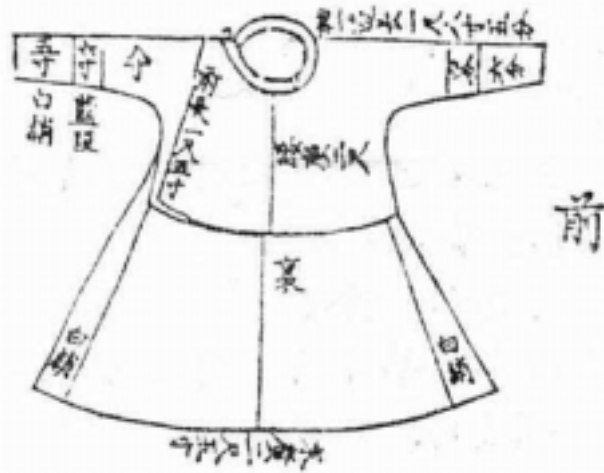


(그림3) 홍주의(紅紬衣) (악학궤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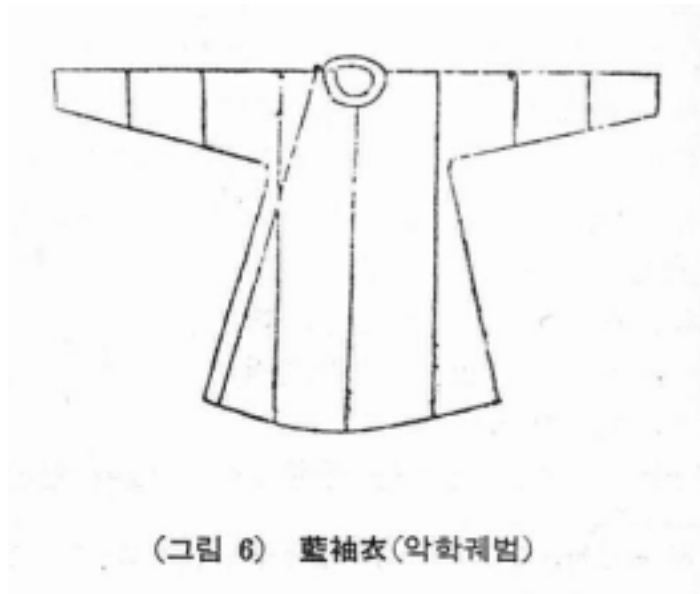
(그림 4) 백중단(악학계범)

(그림4) 백중단 (악학계범)



(그림 5) 丹衣(악학계범)

(그림5) 단의(丹衣) (악학계범)



(그림 6) 藍袖衣(악학궤범)

(그림6) 남수의(藍袖衣) (악학궤범)

Ⅲ. 포의 소매에 대한 고찰

조선시대 포는 매우 다양하였다. 고려 이래 몽고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복식위에 덧 입더니 다시 명제가 들어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시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도상(圖像)으로 볼 때, 왕과 신하의 제복, 공복, 조복, 상복(常服), 편복(便服)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복식사적인 내용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이나 이미 정리된 다른 복식사에 맡겼고 다만 소매 부분만 살펴보면, 관복에서 상복을 제외한 것들은 대부분이 광수(廣袖)로 되어 있으며, 편복은 국속포로 협수임을 알 수 있다.

고려조이래 전승 되어온 국속의(國俗衣)가 편복(便服)으로 착용되었고 이것이 종종, 선조어름부터 생성하기 시작한 중치막(中致莫), 도포(道袍), 창의(擘衣)등의 국속포의 원형으로 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원형속에는 고구려, 신라, 고려 이래 착용된 두루마기도 포함되어 있다. <표 1> 은 포의 착용 기간을 표시한 것이다.

다음은 조선초의 유물은 없으나 가시적으로 남아있는 성종(成宗)때의 악학궤범(樂學軌範)의 관복도설(冠服圖說)을 분석하고 다시 그 뒤 임란 전후기부터 추정되는 출토복식의 포를 개별화하는 소매의 변화를 고찰하려 한다.

1. 악학궤범의 무복(舞服) 소매

이 악학궤범은 성종 24년(1493년)에 편찬한 것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옷은 15-16세기의 악인(樂人)들의 무복이다. 궁중무복의 특수성이 있어, 일반 민중이 입는 편복(便服)과는 달리 차이가 다소 있겠으나, 그 당시의 복식으로 기본 형태를 취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로서 당시 의복의 소매형이 파악되리라 본다.

관복도설의 녹초삼(綠綃衫)은 (그림 2) 우방(右坊)의 악사가 입는 것으로, 삼(衫)은 녹색 초로 꿰맨다.⁴⁾ 소매통이 매우 넓으며 직배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광무(光武) 6년 진찬도(進찬圖)에는 곡선 배래의 광수(廣袖)로 되어 있다.⁵⁾

홍주의(紅袖衣) (그림 3)는 문소전(文昭殿)의 차비악공(差備樂工)의 의복으로 소매통이

4) 악학궤범, 고전국역총서, 민족문화추진회, 1982, p. 176

5) 진찬의궤, 광무 6년(1902년).

넓은 광수로 되어 있으며 소매가 달린 팔쪽의 부분에 약간 곡선을 이루고 있어 두리소매형이다. 그러나 광무(光武) 6년(1902년)쯤은 거의 타원형의 둥근 배래의 광수로 되었다.

백중단(白中單)은 (그림 4) 학생, 악공(樂工), 도창악사(導唱樂師)등 많은 악인들의 의복으로 중단(中單)은 광수의 직배래로 이것은 국말까지 변함이 없다.

단의(丹衣)(그림 5)는 홍라(紅羅)로 만드는데 앞이 짧고 뒤가 길며 좌우 무와 소매끝에는 홍라 백초(紅羅白紵)를 단다. 이것은 착수형으로 직배래이며 고종(高宗) 24년에는 곡선으로 된것과 사선의 직선 배래로 된 것이 있다. 다시 광무(光武) 6년에는 저고리처럼 멋있는 둥근 배래형으로 된다. 남주의(藍紵衣) (그림 6)는 단령(團領)으로 속악(俗樂)의 문무(文舞)와 무무(武舞), 의물(儀物)을 잡는 공인(工人)이 입는다. 소매는 착수형으로 직배래이나 이것이 후에 진찬도에는 나오지 않아 중간에 없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흑단령(黑團領) (그림 7)은 흑색으로 소매는 착수에 직배래이다.

단첩리(單帖裏) (그림 8)은 가동(歌童)의 용복(戎服)으로 입으며, 착수에 직배래이다. 이것은 독제(獨祭)의 궁시무(弓矢舞), 간척무(干戚舞)의 공인(工人)도 입어 방의(防衣)라고도 하는데, 국말 현종(憲宗) 14년(1848)과 광무(光武) 9년에는 선유악(船遊樂) 복식으로 이 천릭을 입었으며 소매는 광수로 변화했다. 이 세종조(世宗朝)의 용복(戎服)의 제도는 원래 고려의 몽고(蒙古) 질손(質孫)에서 나온 것이고, 태종조(太宗朝)에는 허(許)조가 토황천릭(土黃天翼)에 탑호(襟호)를 받쳐 입었던 것으로, 조선초에 남녀 공용으로 편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 천릭이 고구려 시대부터 착용하였다는 설도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보다 1세기 후의 것으로 순천 김씨(順天金氏)천릭이 이 제도와 같다.

처용복(處容舞) (그림 9)의 의(衣)는 각 오방의 색으로 청, 황, 흑, 백의 비단으로 만들며 앞자락이 짧으며 뒷자락이 길다.⁶⁾ 소매는 착수에 직배래로, 현종(憲宗) 14년에는 소매통이 넓고 곡선배래로 된다.⁷⁾

이상에서 조선초기의 무복을 중심으로 포의 소매형태를 알아본 결과 의(衣)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포는 대부분 착수 소매이며 삼(衫)이나 몇 개의 포가 광수로 되어 있다. 즉, 광수(廣袖)는 홍주의(紅紵衣) 녹초삼(綠草衫) 비란삼(緋欄衫) 등이고, 착수(窄袖)는 남주의(藍紵衣) 단첩리(單帖裏) 처용복 의(衣) 무동관복(舞童冠服)의 의(衣) 단의(丹衣) 흑장삼(黑長衫)등으로 주로 착수 소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흑단령(악학계법)

(그림7) 흑단령 (악학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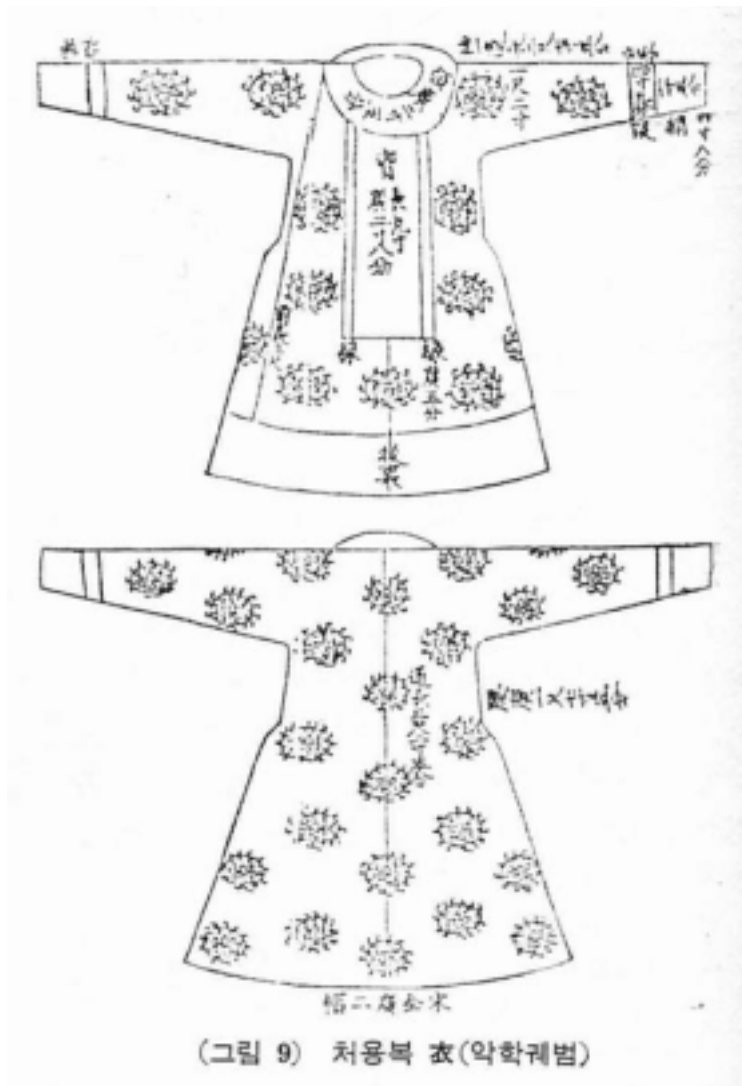
6) 악학계법, 윗책, p. 186

7) 진찬의례, 현종 14년 (1848), 무갑.



(그림 8) 단첩리(악학계범)

(그림8) 단첩리 (악학계범)



(그림 9) 처용복 의(衣)(악학계범)

(그림9) 처용복 의(衣) (악학계범)

참고로 조선시대 진찬도에 그려진 무복의 포소매를 분류하였더니 착수와 광수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2)

<표2>조선시대 진찬의궤의 무복 소매 분류

○=광수
□=중간수
△=협수

舞踊名	服飾名	(1828년) 순조28년	(1829년) 순조29년	(1848년) 현종14	(1868년) 고종5	(1877년) 고종14	(1887년) 고종24	(1901년) 광무 5	(1902년) 광무 6	배래형	깃
典樂服飾	綠綉衫	○	○	○	○	○	○	○	○	곡배래	단령
樂工服飾	紅袖衣	○	○	○	○	○	○	○	○	곡배래	단령
舞童服飾	紅禾袖衣	○	○						○	곡배래	단령
	尖袖	△								직배래	직령
	白中衣	△	△						△	직배래	직령
處容服飾	衣	△		□						직배래	단령
學廳服飾	黑縹綠綉衫	○								곡배래	단령
秋侍服飾	紅袖衣	○								곡배래	단령
司唱服飾	草綠圓衫	○	○							곡배래	단령
典樂服飾	黃質黑縹中單	○	○							곡배래	직령
	綠羅袍	○								곡배래	단령
樂工服飾	紅羅袍	○								곡배래	단령
舞童服飾	花蝶袍	○								곡배래	직령
	花錦袍	○								곡배래	단령
	圖匠	○								곡배래	직령
	挾袖	△								직배래	직령
	紅羅?袖衣	△								직배래	단령
	草綠挾袖	△								직배래	단령
	灰色掛子	△	□							직배래	단령
	藍貼裏	○								곡배래	단령
女伶服飾	黃袖衫		△ ○	□	□	□	□	□	□	약한 곡배래	단령
童妓服飾	丹衣			△	△	△	△	△		직배래	단령
船遊樂服飾	藍紗貼裏			○	○	○	○	○	○	곡배래	단령
劍器舞服飾	金香袂袖			△	△	△	△	△	△	직배래	단령
蓮花臺舞服飾	丹衣					△	△		△	직배래	단령
舞山香服飾	紅?袖衣						△			직배래	직령
歌者服飾	綠圖領								○	곡배래	단령
女伶服飾	綠綉衫							□		직배래	직령

이상의 진찬의궤에 도식되어 있는 무복의 소매를 분류해 본 결과 순조 28년 (1828)부터 광무 6년(1902년) 사이에 여러 의복중, 소매의 배래가 곡선으로 되어있는 것이 16개, 직선 배래형으로 된 것이 12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의복의 소매가 변화하는 데 비하여 계속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원인은 무용에 따른 특수한 성격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의복의 깃의 모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령깃에는 직배래가 많았고 곡령인 단령에는 곡선 배래 소매형이 많았다. 이는 또한 포의 명칭에 곡선 배래가 많은 반면에 직선 배래는 의(衣)의 명칭이 있는 의복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령에 협수 소매형이 국속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직배래로 되어 있었다면 단령은 대부분이 포의로서 광수로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철릭의 소매

철릭은 첩이(帖裏)라고도 하며 천릭(天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몽고의 질손(質孫)이 변화하여 된 것으로 명칭만 다를뿐 실제 형태는 차이가 없다. 이 제도는 심의(深衣)와 비슷하

므로 조선초 문사들이 편복으로 많이 입었으며, 왕의 연거복(燕居服)이나 조복(朝服)에서는 중의(中衣)로 이었으며, 용복(戎服)을 대신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착용되었던 만큼,⁸⁾ 출토 복에서도 대량 나오고 있다. 이것이 임진(壬辰) 병자(丙子) 호란(胡亂) 때에는 사대부의 관복(冠服)을 대신하여 착용되기도 하였다.

이 천릭의 구성은 상의하상(上衣下裳)의 연철로 되어 있고 고름이 처음에는 두 개 뒤에는 한 개 달려 있으며, 허리띠를 두르기도 하였다. 허리에 주름을 많이 잡아 위와 연결한 원피스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편리한 기능성이 있고, 때로는 활을 쏘기 위하여 소매를 일부 분 달았다, 때었다하여 필요에 의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던 융통성이 있었던 것은 민첩함과 기능성이 필요한 대문일 것이다.

조선초의 천릭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은 악학궤범의 무복(그림 10)으로 이것은 소매가 좁으며 직선 배래로 되어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넓어져 갔으며 이에 대하여 금령 제한이 수 없이 반복 되었지만 잘 이행되지 않았음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이 천릭의 소매가 컸던 것을 지적한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천릭의 제도는 심의(深衣)와 가깝고, 중고(中古)에 많이 문사의 편복이 되기도 하였다. 허엽의 서종손(庶宗孫)도 천릭을 사용하였으며, 상의태장(上衣太長), 하상태단(下裳太短)이었다고 하여 현재도 사대부 집에서 수의로 사용하는 대수장군(大袖長裙)이 심의와 천릭의 제도와 유사한 것이다.”⁹⁾라고 있어, 이것은 충북대 소장의 순천김씨(順天金氏)의 천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긴 소매는 고쳐지지 않았음인지 선조(宣祖) 26년 7월 천릭이나 표의(表衣)의 소매를 고치도록 하였는데, 이 명령은 선조 7년부터 이미 내려졌었으나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천릭은 인조대(仁祖代)에 일시 공복(公服)이 되기도 하였으며 계속 국말까지 착용되었다. 그러나 고종 말년경 광수포(廣袖袍)의 폐지와 함께 이 천릭도 자취를 감추었다.

성종(成宗)때 편찬된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실려있는 천릭은 조선초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록 무복(舞服)의 일종이지만 당시의 천릭의 형태를 아는 데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리라고 본다. 소매에 이음선이 두 개가 있으며, 이 간격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천의 폭의 크기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1)은 1540년대 천릭으로 소매의 진동선이 43cm로 넓으며 직배래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악학궤범의 천릭보다 광수화 되어 있어 점차 넓어지는 소매형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넓어지는 관계를 문헌에서 살펴보면, 중종 실록 31년(1536년) 윤 3월초에 “우리 의복이 중국제를 도입하여 소매를 임의로 변경하였다.”¹⁰⁾ 고하고 있으며, 또 이듬해인 32년 1월에는

“중국 사신을 맞는 자리에서 포가 길고 소매가 넓었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중(市中), 상고(상가(商賈))의 무리가 사치를 숭상하여 그렇다고”¹¹⁾ 하고 있다.

이로보아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시중, 상고의 복식인 국속포로 보이며, 이 종류의 직령, 천릭창의(斲衣) 등이 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천릭의 소매도 넓었을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림 12)는 1580년대 순천김씨(順天金氏)¹²⁾의 모시 천릭으로 소매가 매우 길어 화장이 143cm나 되며 소매형은 착수의 직배래로 되어있다. 이와 같이 긴 소매는 연대가 비슷한 동래정씨(東來鄭氏)(1580년)의 직령포와 장흥임씨(長興林氏) (1590년대)의 직령포에서도 볼 수

8)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73, p. 63

9) 이유원, 임하필기, 권 17.

10) 중종실록, 31년, 윤 3 월초.

11) 중종실록, 32년, 1월초.

12) 순천김씨의 생존년대에 관하여, 김동욱, 고북남의 복식지 2호에 (출토 조선시대 유의의 복식사적 연구)에서 의복 착용 연대를 1530년대로 보고 하였으나, 충북 대학의(임란 전후출토 복식 및 상례)에서 이수봉 교수는 1567년 순천김씨가 아들을 낳았고 김시의 미이라는 40세 정도로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이 순천김씨가 생존했던 시기를 (1547년 - 1587년)으로 보아 1580년 경의 의복으로 취급하였다. 이는 그의 의복의 형태나 소매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을 밝힌다.

있어, 이는 당시포의 소매의 길이가 긴 것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는 이렇게 긴 여자 의복 소매가 발견되지 않아 시대적인 일종의 유행이었다고 보아야겠다. 동일인의 다른 누비천릭은 약간 소매가 넓으며 배래가 진동에서부터 수구쪽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되어있는데 이와같은 형이 김위(金緯) (1618년)의 천릭과 유사하다. 이는 여자의 것과 남자의 것이 같은 형태였음을 이해하는 증거가 된다.

(그림 13)은 장흥임씨(長興林氏)(1596년)의 흰무명 홀천릭으로 좌측 7군데를 매듭 단추로 달았다, 떼었다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남성의 천릭이 용복으로 전쟁터에서 필요한때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여성복에도 같은 형태로 되어있어 이는 하나의 고정적인 당시의 천릭의 형태를 볼 수 있어 기능상의 필요뿐 아니라 복식의 남녀 구별이 포에는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겠다.

김덕령(金德齡)장군 (1580년)(그림 14)의 천릭은 임란을 전후로한 시대로 보이는데, 소매가 착수형으로 이는 직배래형의 악학궤범의 천릭과 매우 흡사하다. 여기서 생각할 점은 성종 때의 착수 소매가 임진란(1592년) 때까지 계속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출토 복의 소매의 형태가 넓어진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는 기록으로 선조 26년 2월에 중국의 여응주라는 자가 우리의 옷소매를 가리키면서 “큰소매로 군복을 만드느냐”고 비웃었다는 기록과,¹³⁾ 26년 7월에 예조에서 모든 관원이 천릭과 이의(裏衣)로서 직령을 입되 다 착수로 하라“하고 명령을 내렸다고 되어 있다.¹⁴⁾

이 시기는 임란이 선조 25년 (1592년)에 일어났으니 바로 그 이듬해의 전쟁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보아 악학궤범이 완성되던 즈음의(1493년) 천릭의 소매가 중중조에 넓어졌다가 임란까지 계속 하였으며, 전쟁의 와중속에서 전쟁복으로 입던 이 천릭의 큰 소매에 대한 거론이 생기게 되었다고 보아야겠다. 이러한 실증적 실물로 김덕령의 천릭의 소매가 좁으며 그 이후인 김위(金緯)(1618년) (그림 15)의 천릭 소매도 좁다는 것으로 알만하다.

이렇게 착수화된 소매는 효종 7년대까지 이어졌음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다음과 같이 있다.

효종(효종) 실록 7년(1656년)에,

“금위장사(禁衛將士)들에게 좁은 소매에 짧은 상의를 입히게 하고 상감께서는 용사에 관심을 기울였으므로 비단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다.”¹⁵⁾고 하고 있다. 이는 금위장사의 신분으로 보아 천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매가 좁은 것을 입게 하되 비단을 허용하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착수 권유는 실지 이행이 되어 오다가 효종(孝宗)조를 상한선으로 다시 넓어진 것으로 보는데, 이는 김위의 천릭이 약간 넓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소매는 현재의 여자 저고리의 배래와 비슷한 모양으로 중간수 정도라고 보겠다. 이 의복의 주인공인 김위가 임란 당시에 현감의 벼슬을 하였다니 임란 전후의 관리 의복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관복의 밑에 입던 직령의 소매가 이 천릭의 소매와 비슷한 점으로 보아 이것이 당시에 내의 포 소매의 시대적 유형이라고 보인다.

이 후의 김덕원(金德遠)(1634 - 1704년)은 숙종때 사람으로 임란 약 1세기 후의 사람이다. 그의 천릭이 광수로 되어있으며 배래는 진동에서 사선으로 밋밋하게 굴러지면서 소매통은 넓은 두리 소매형이다. 이와 같은 소매 형은 조선말기까지 이어지며 다만 소매의 통이 이보다 더욱 넓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김덕원의 천릭 소매는(그림 16) 약 16cm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

이와 같은 시기의 사람으로 승헌대부 서천군 이황(1651-1724년)은 효종에서 영조초에 사람인데 그의 초록 운문단 천릭의 소매는 김덕원의 것과 같으며 소매통은 57cm로 역시 두리 소매형이다. 이와같은 넓은 소매가 정조 시대까지 계속 되었음을 다음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13) 선조실록, 26년, 2월조.

14) 선조실록 26년, 7월조.

15) 효종실록 7년.

정조실록(正祖實錄) 17년(1741년) 10월 신미 조에

“진신(摺神)들의 고복의 소매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 옛제도와 같지 않으므로 조예(皂隸) 무리들의 천력의 소매까지 그들을 따라 넓어져 거의 완폭(完幅)의 비단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으니 지나친 낭비가 민망할 정도이다.”¹⁶⁾

하여 당시 소매가 넓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1700년대 말기의 천력은 당시의 화가 혜원(蕙園)(영조 36년 (1760))의 풍속화(그림 17)에 광수천력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출토복과 문헌 그리고 회화의 내용일치를 실증해 주고 있다. 특히 (그림 18) 천력은 남녀 무당이 입고 있는데 이는 악학궤법의 무복이래 진찬도에서 검기무(劍器舞)나 고구려무(高句麗舞) 등에도 계속 입어 온 것으로, 다양한 용도의 의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매는 이후에도 계속 넓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최근 발표된 흥완군(興完君) (순조 25년(1815)-현종 14년(1848))의 천력은 (그림 19) 광수의 두리 소매형으로 되어 있으며 소매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단추로 연결되어 있어 이와 같은 방법이 1500년대 이래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말에 이르러 천력의 소매는 극대화되고 흥완군(興完君)의 소매 부리와는 약간 다르게 되었다. (그림 20)은 소매통이 51cm로 당시의 다른 포의 소매도 이렇게 광수화 되어 고종(高宗) 21년 5월 25일 의복 개혁에서

“우리나라의 사복으로서 도포, 창의, 직령, 중의(中衣) 등의 소매가 너무 넓어 불편하다.”¹⁷⁾고 하였다.

이 모두 없애고 양반이나 천민이나 다같이 소매가 좁은 두루마기를 입도록 하라고 하여 이 천력도 함께 폐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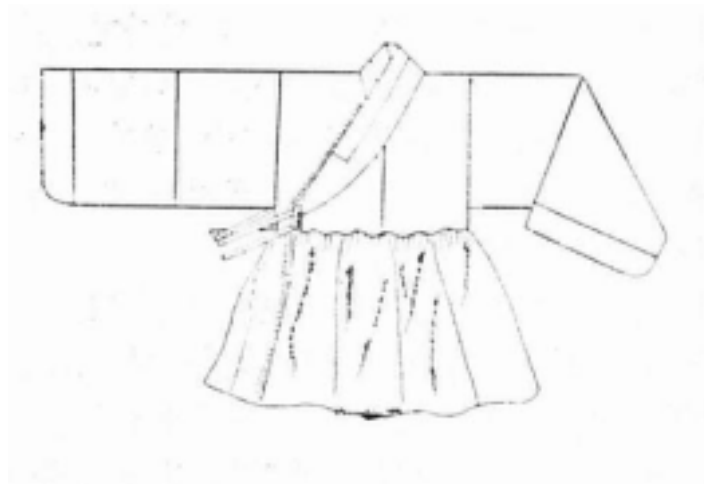
이상에서의 천력의 변화중 주목 해야할 점은 착수였던 천력이 광수화 되면서 수차에 걸쳐 넓은 소매에 대한 거론이 있었으며, 이는 용복(戎服)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복의 용도상의 문제와 차별을 의복에 기준하여 거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제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음은 이 의복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의 과시욕은 상층을 모방하려는 일종의 상향(上向) 심리가 의복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층계에서는 광활한 소매를 착용하므로 이 부피가 표현하는 여유와 거대한 위압감이 주는 심리적인 만족으로 광수와 확대는 계속되었으리라고 보아진다.



(그림10) 천력(1940년) (악학궤법)

16) 정조실록 17년 10월 신미.

17) 고종실록 21년 5월 25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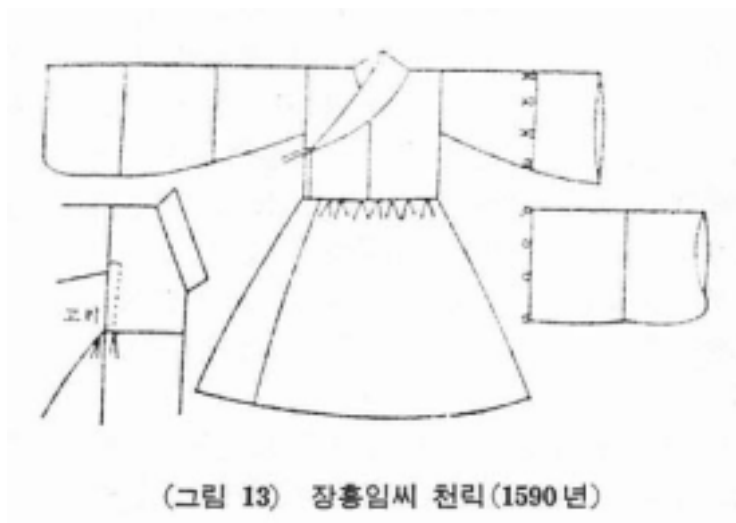
(그림 11) 천릭(1540년)

(그림 11) 천릭(15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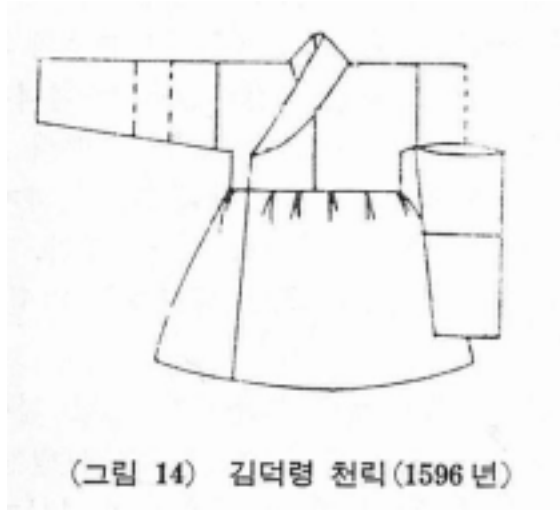
(그림 12) 순천김씨 천릭(1580년)

(그림12) 순천김씨 천릭(15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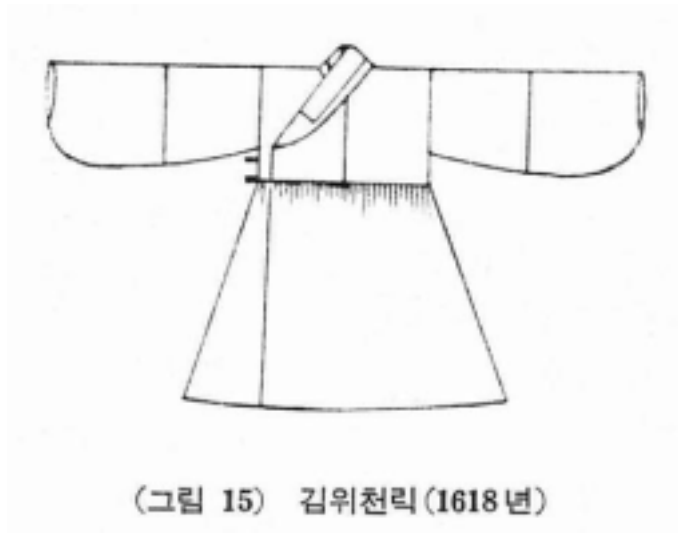
(그림 13) 장홍임씨 천릭(1590년)

(그림13) 장홍임씨 천릭(15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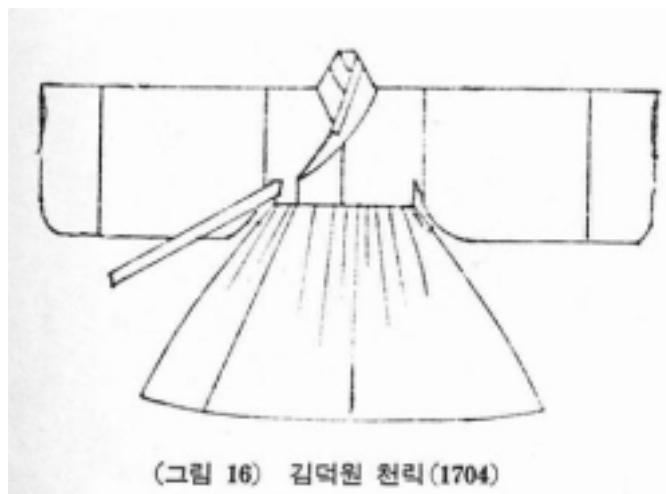
(그림 14) 김덕령 천릭(1596년)

(그림14) 김덕령 천릭(1596년)



(그림 15) 김위천릭(1618년)

(그림15) 김위천릭 (1618년)



(그림 16) 김덕원 천릭(1704)

(그림16) 김덕원 천릭(17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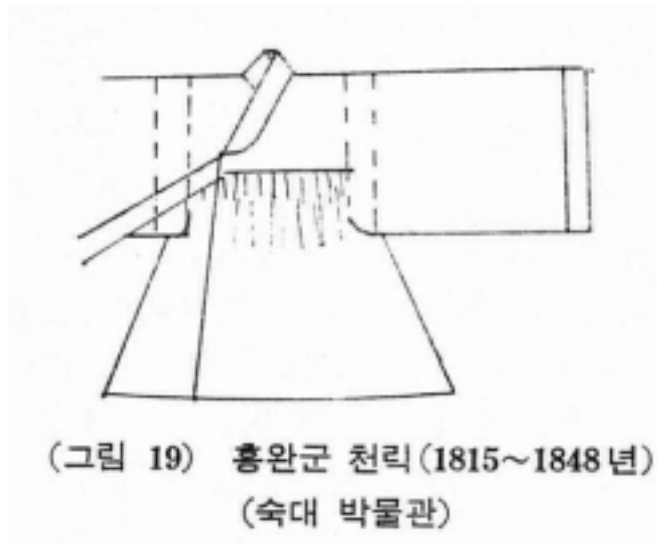
(그림 17) 혜원 풍속화 천리(1700년말)

(그림17) 혜원 풍속화 천리(1700년말)



(그림 18) 무녀의 천리(혜원풍속화)

(그림18) 무녀의 천리(혜원풍속화)



(그림19) 홍완군 천릭(1815~1848년) (숙대박물관)



(그림20) 국말 천릭(창덕궁소장)

3. 직령포(직령포)의 소매

직령포는 두루마기와 같이 옆이 막힌 국속포로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통하여 남녀가 같이 입었다.

현존 유물인 이인웅(李彦雄)(1590년)(그림 21)의 직령포는 소매의 진동이 겨드랑 밑에서 시작하지 않고 몸판쪽으로 약간 들어간 곳부터 달려 있다. 통수의 형태로 배래는 직선이며, 광수에 비하면 작지만 협수보다는 비교적 넓다. (여기서 광수라 함은 관복포의 넓은 소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시대의 다른 포의 소매는 이와 다르다. 다만 저고리의 소매는 이와 같이 소매가 내측으로 달려 있는 것도 있어, 이는 직령포의 소매가 겹포에 대하여 저고리와 함께 내의(內衣)적인 공통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래정씨(東來鄭氏)(1580년)(그림 22)의 직령포는 상당히 소매가 길다. 이는 요즈음 기준으론 하여 보통 여자의 화장 치수가 약 70cm 정도에 비교할 때 그렇다. 그런데 이 소매는 당시의 남자 직령포와 소매 모양과 같다.

또 다른 여자의 것으로 장흥임씨(長興林氏)(1590년)(그림 23)의 것은 화장이 122cm나 되

며 진동과 수구가 같은 치수로 일직선 배래이며 전체적으로 풍성하다. 이것은 같은 시대의 순천 김씨 천릭이 이와 같이 긴소매로 되어 있어 당시에 이와 같은 긴 소매가 통상적으로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긴소매가 이후에 출토품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음 시대에는 이것의 길이가 줄어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 박장군(傳 朴將軍)(1592)(그림 24)의 직령포는 여러벌이 있는데, 농갈색 무명 직령포는 진동이 29cm에 소매통 28cm, 수구 26cm로 통수에 직배래이다. 소매에 끝동이 달려 있으며 무가 진동에서부터 시작한다. 시기로 보아 임진왜란(壬辰倭亂) 직후의 것으로 당시에 광수 소매가 많았던 데 비하여 좁은 소매형이다. 또 다른 동방형 직령포(東方形直領袍)(그림 25)는 길이가 약간 짧으며 직선 배래다. 이와는 약간 다르게 겹유 직령포(袂襦直領袍) (그림 26)는 소매끝동에 5cm간격의 이음선이 세 개 있고 가로와 세로의 선이 복합되어 있다. 그리고 소매통은 역시 직선 배래다.

김덕령(金德齡)(1596)의 직령포는 여러개가 있는데 각각 다르다. 무명 겹누비 직령포는 착수에 직배래형으로 다른 직령포와 비슷하다. 그러나 동방형포(그림 27)는 배래가 곡선으로 되어 있으며 수구가 좁다. 화장이 다른 포에 비하여 짧아, 이것이 긴 저고리 역할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외에도 누비 직령포는 직배래에 통수형이다. 또 다른 것으로 명주 직령포(그림 28)는 소매가 상당히 길고(다른 것보다 40cm정도) 착수로 되어있어 혹시 수의로 만들어 넣은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장흥임씨의 직령포나 순천 김씨의 천릭과 같은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위(金緯)(1618 년)의 직령포(그림 29)는 임란 바로 뒤의 것으로, 역시 소매의 변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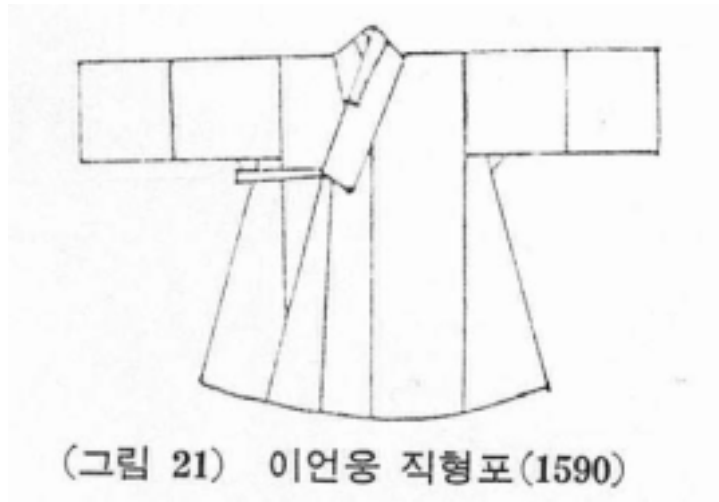
진동과 수구의 길이가 같고 화장은 김덕령의 것과 비슷하다.

광해군(光海君)(1620 년) (그림 30)의 직령포는 역시 임란후에 것으로 다른 직령포의 소매와 다르다. 대부분 직배래로 되어있는데 비하여 진동에서부터 소매통이 차츰 넓어지면서 수구쪽에서 둥글게 올라가는 형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화장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약 10cm 정도가 긴 것은 귀자(貴子)의 의복으로 손을 덮도록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형은 같은 시대의 김위(金緯)의 소창의(小釐衣)와 흥진종의 중치막과 같은 형으로 이 시대의 소매 류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 이휴정(李休亭)의 흥려박씨(興驪朴氏)(1605-1672 년)의 직령포(그림 31)는 양쪽에 무가 없으며 소매가 매우 짧아 화장이 54cm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소매통은 30cm로 통수에 직배래형이다.

또 같은 곳의 문영부인(文英夫人)(1637-1657 년)(그림 32)의 청색 겹직령포는 길이는 흥려박씨의 것과 비슷하나 화장이 90cm로 긴 편이며 직선 배래에 통수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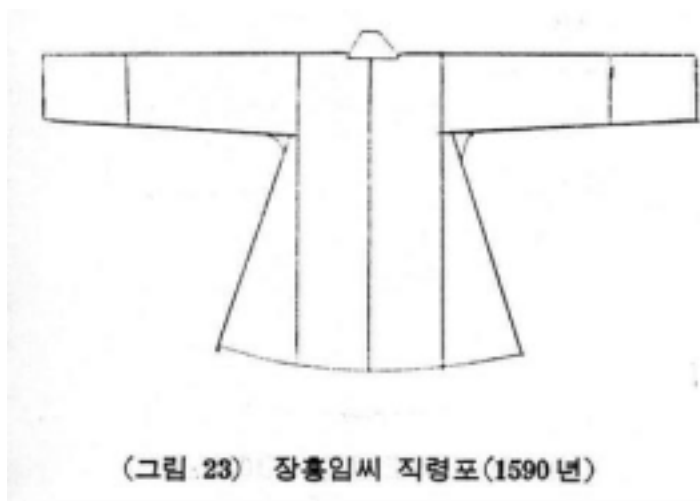
이상에서 직령포의 소매는 대부분이 직선배래로, 소매통이 넓지 않은 통수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른 포의 소매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 비하여 고정적인 형태의 전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의 김덕원(金德遠) (1704 년)(그림 33)의 묘에서 출토된 직령포는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데 모양이 모두 일정하다. 소매통이 좁으며 진동보다 수구쪽이 훨씬 작아져 배래가 사선을 이루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이 직령포의 소매는 착수형으로 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남자의 직령포가 착용상 내의(內衣)의 역할을 하였으며, 하서인(下庶人)의 공복(公服)으로 착용되었던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의복의 형태도 남녀의 구별이 별로 없었으며, 시대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 역시 국속포의 성격으로 일반 서민의 의복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직령이 국말에는 (19세기) 다른 포와 같이 소매가 광수화되어 공복으로 입다가 착수 금지령에 의하여 소매가 좁아지고 두루마기형(그림 34)으로 남게 되었다.



(그림21) 이언옹 직형포(1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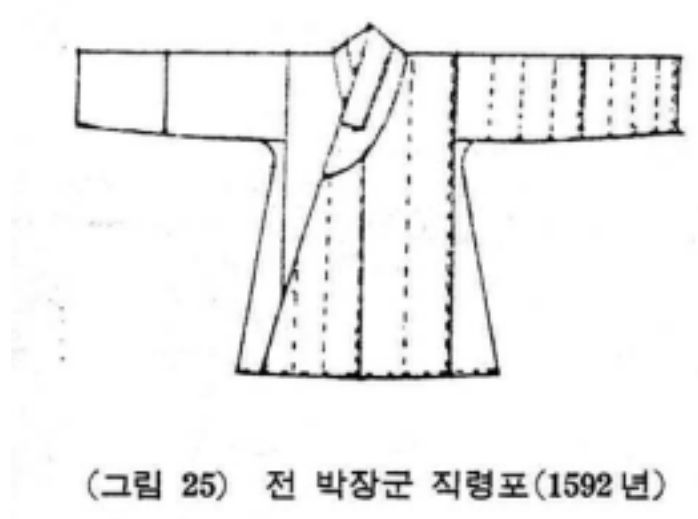
(그림22) 동래정씨 직영포(1580)



(그림23) 장흥임씨 직령포(15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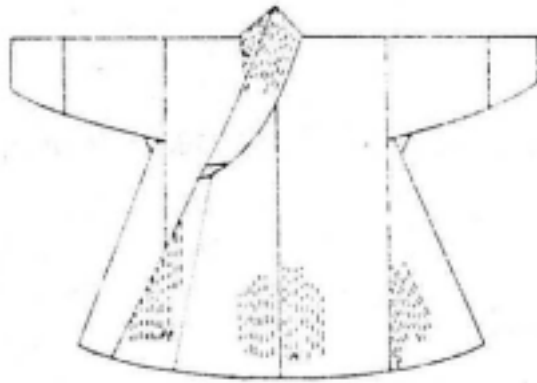
(그림24) 전 박장군 직령포(1592년)



(그림25) 전 박장군 직령포(15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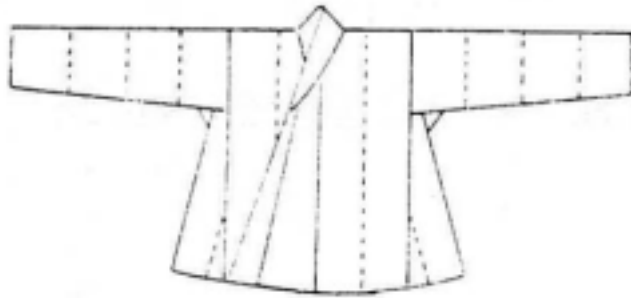


(그림26) 전 박장군 직령포(15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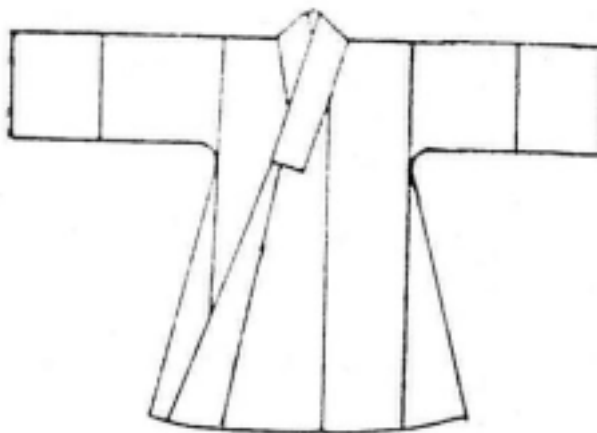
(그림 27) 김덕령 직령포(1596년)

(그림27) 김덕령 직령포(15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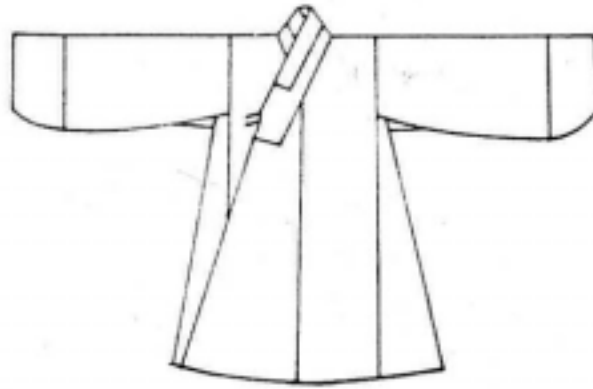
(그림 28) 김덕령 직령포(1596년)

(그림28) 김덕령 직령포(1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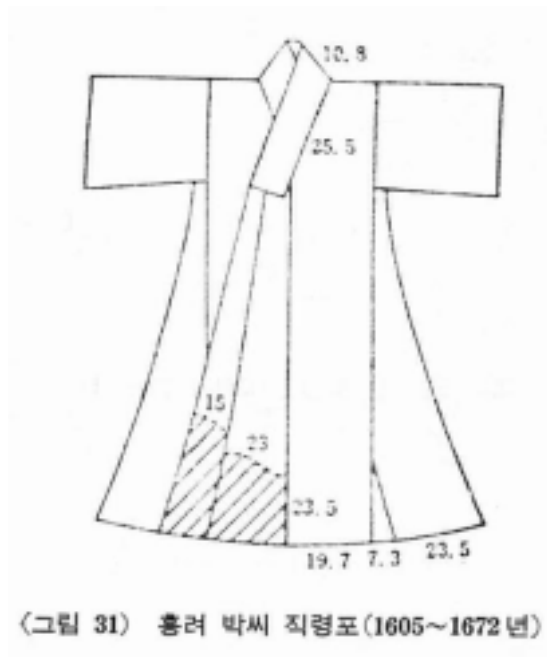
(그림 29) 김위 직령포(1618년)

(그림29) 김위 직령포(16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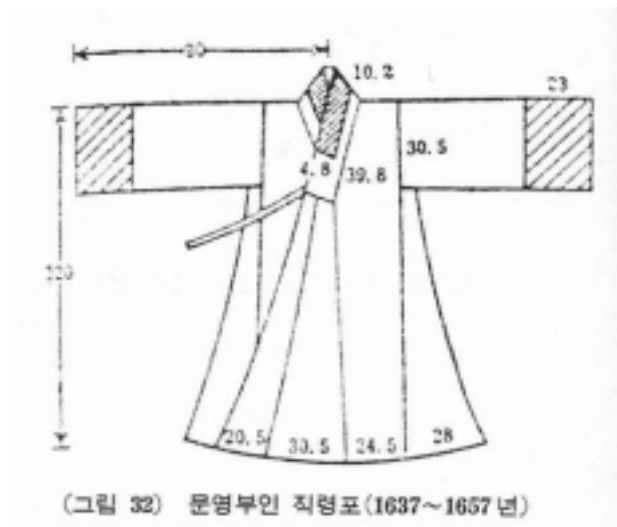
(그림 30) 광해군 직령포(1620년)

(그림30) 광해군 직령포(16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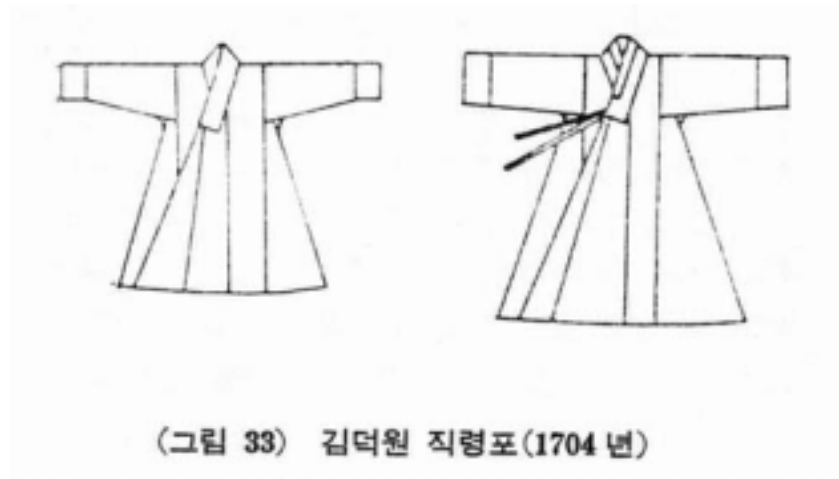
(그림 31) 홍려 박씨 직령포(1605~1672년)

(그림31) 홍려 박씨 직령포(1605~1672년)



(그림 32) 문영부인 직령포(1637~1657년)

(그림32) 문영부인 직령포(1637~1657년)



(그림 33) 김덕원 직령포(1704년)

(그림33) 김덕원 직령포(1704년)



(그림 34) 국말 직령포(창덕궁소장)

(그림34) 국말 직령포(창덕궁소장)

4. 창의(警衣)의 소매

조선중기에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창의는 도포와 중의(中衣)의 중간형태로 양옆이 터져 세자락의 옷으로 되어 있으며 소창의(小警衣)로 나누는데, 이 차이는 소매의 크기와 옷의 품의 여유에 따른다. 이 창의가 사대부의 의복임을 순조 실록 34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음문관(蔭文官)은 첩리를 입던 것이 변하여 창의가 되었다.”¹⁸⁾

전 박장군(傳 朴將軍)의 소창의 (그림 35)는 소색무명 겹유 창의로 소매는 보통 정도이며 둥근 배라인데 거의 끝동쪽의 소매통이 가장 넓게 되어 있다. 화장은 95cm로 옷의 크기로 보아 현재 두루마기 정도라고 보아진다. 이때는 임진란을 전후하여 소매의 착수령이 내려지던 시기이지만 소창의는 소매가 착수 형으로 착수령에 구애받지 않았을 것이다. 동일인의 청색무명 겹창의도 같은 소매 형으로 끝동이 달려있다.

이후의 김위(金緯)(1618년)의 소창의 (그림 36)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의 저고리 소매

18) 순조실록, 권 3, 34년 4월조.

형과 같다. 이것은 본인의 천력의 소매형과 같아 이는 다른 표의(表衣)의 내의(內衣)적 성격을 띄고 있는 중치막, 천력, 창의의 공통적인 요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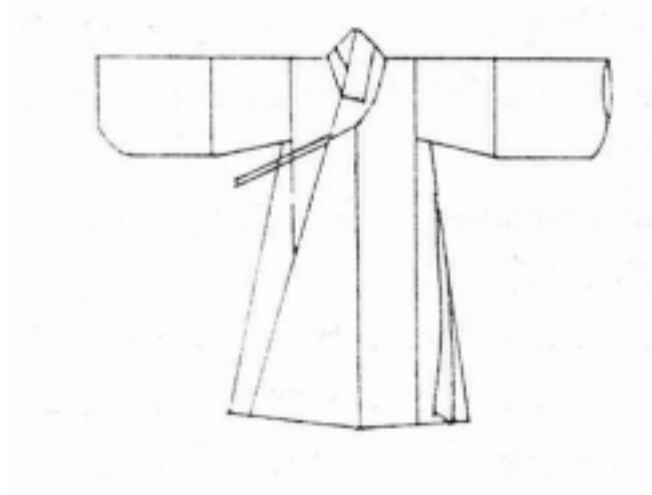
그러나 거의 1세기 후의 것으로 홍진종(洪鎭宗)(1702년)의 소창의(그림 37)는 김위의 것과 소매모양의 실루엣이 전혀 다르다. 포의 옆선이 거의 일직선의 수직을 이루고 있으며 소매는 통수에 직배래로 소매통과 수구의 크기가 같다. 이것은 이 시대의 직령포의 소매와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의 출토유물의 소매는 조선초의 소매 형태가 계속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포에 비하여 소매의 변화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변화가 없는 것은 직령포와 공통적인 성격이 있다. 이는 국속 포의 일종으로 겹포의 안에입는 내의 역할과 내의 적인 역할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혜원의 풍속화에 소창의(그림 38)는 여러 가지가 묘사되어 있는데 홍진종, 김덕원(그림 39)의 창의와 비슷하다. 소매는 착수이며 옷의 실루엣도 거의 같아 1700년대 초의 창의가 1700년대 말기까지 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실물과 그림에서 당시에 창의의 형태를 일치 시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창의의 소매는 넓이가 대부분 20cm 정도로 천력이 김덕원의 것으로 16cm인데 비하여 상당히 좁은 것으로 당시의 저고리 소매통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령의 소매통도 이러한 정도였다.

반면, 대창의(大擘衣)는 소창의가 계속 착수형을 유지하였던데 반하여 넓은 두리소매형으로 되어 있다. 홍진종의 대창의(그림 40)는 숙종조의 것으로 광수에 두리소매이며 소매통은 51cm 정도로 이는 같은 시대의 김덕원의 중치막도 이와 비슷한 크기에 두리소매의 공통성이 있다. 또 다른 홍진종의 여러개의 대창의도 모두 비슷한 크기인 50cm 정도 안팎의 넓이로 되어 있어 이 소매크기는 명칭에서 대(大)를 의미하는 것이 소매의 크기에 따라 특히 소매는 항상 광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토복중에서 1700년대 이후는 소창의 보다 대창의가 많은 것은 당시에 큰 소매형을 더욱 즐겨 입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는 임란이후 소매가 대체적으로 작아지는 현상은 없고 광수화 되어지는 이류로도 관련지어 생각하면 큰소매의 선호 경향을 파악하게 된다고 본다.



(그림 35) 전 박장군 소창의(1592년)

(그림35) 전 박장군 소창의(1592년)



(그림 36) 김위 소창의(1618년)

(그림36) 김위 소창의(16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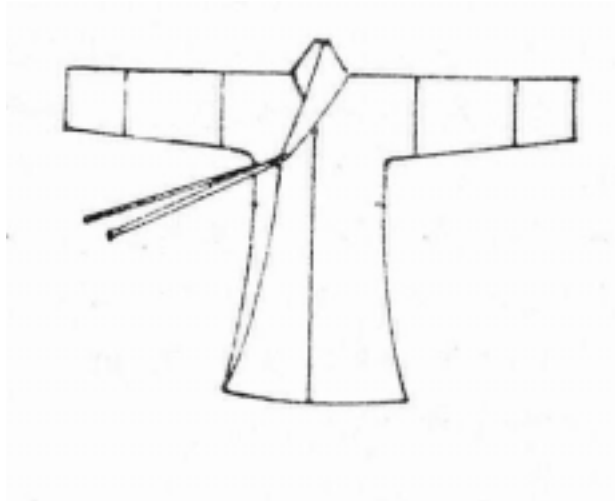


(그림 37) 홍진종 소창의(1702년)

(그림37) 홍진종 소창의(1702년)



(그림38) 소창의 (해원풍속화)(1700년 말)



(그림 39) 김덕원 소창의(1704년)

(그림39) 김덕원 소창의(1704년)

5. 중치막(중치막)의 소매

중치막은 직령으로, 일종에 중의(中衣), 행의(行衣)라고도 하며 사대부의 포 아래 입었던 것으로 옆이 막히고 뒤 중심선이 허리 아래 부분부터 터져내려 오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조 말에는 대부분 두리 소매로 되어있고 외의(外衣)로도 입어 하서인이 이를 곁에 입고 다니면 중치 막쟁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조선조 말기의 대표적인 외의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지금의 두루마기를 입지않고 다니는 것을 동저고리 바람으로 다닌다고 의복의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일종에 내의(內衣)의 외의화(外衣化)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치막의 생성은 문헌기록에 “중치막에 전삼을 달으면 도포가 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도포가 임란기에 생긴 것으로 본다면 조선초의 중단(中單)이 변하여 비슷한 시기에 생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홍극가(洪克加)(1670년)의 중치막(그림 42)의 중치막 (그림 42)은 소매가 현재 저고리 소매와 흡사한데 이는 김위(金緯)의 천력 소매와도 같은 형으로 보아 당시에 이러한 소매도 각기 여러 포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1600년대의 소매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는 홍진중(1702년)의 중치막으로 이는 홍극가(洪克加)의 것과 소매형이 매우 다르다. 즉 홍진중의 중치막은 착수형에 직배레이며 통수로 되어있다. 이 시기는 대부분의 포의 소매가 광수화되었던 시대로 보아 예외의 착수형이다. 그러나 이런 착수는 홍진중의 소창의와 김덕원의 소창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치막과 창의를 내의적인 성격이 있는 때문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김덕원(金德遠)(1704년)의 중치막은 (그림 44) 광수에 두리소매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진중의 대창의에 소매와 비슷하다. 이상의 중치막의 소매들을 정리해보면 중치막에도 광수와 착수소매가 공존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치막이 영조(英祖) 실록 52년 3월에 보면, 왕의 재궁(중궁(棕宮))에 채운 의대의 치부(置簿)에

(중적막(중치막, 中致莫))이 28벌, 천력 1벌, 도포 7벌, 답호 19벌, 창의 2벌¹⁹⁾ 등이 들어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물론 신분과도 관계가 있겠으나 당시 의복의 착용 빈도가 많은 것과 비례로 짐작할 때, 사대부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고 이 중치막의 착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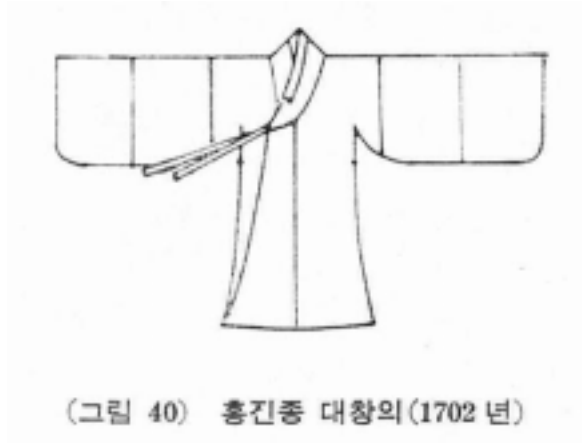
빈번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덕원(金德遠)의 광수형 중치막은 180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

19) 영조실록, 52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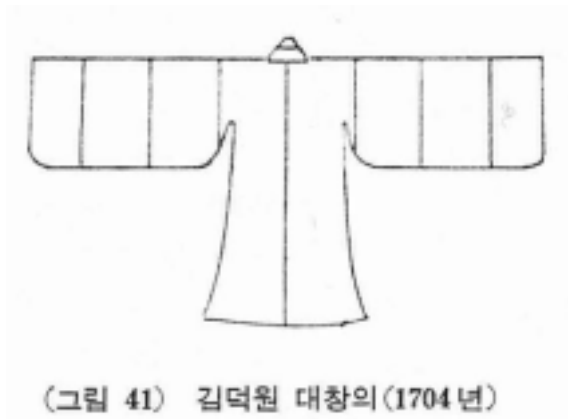
말에 광수포 속에 끼어 폐지 되었다는 기록으로 관련지어진다.

이상과 같이 선조를 전후한 조선 중기에 생긴 중치막은 국속포(國俗袍)의 일종으로 처음에는 착수이던 것이 점차 넓어져 다른 포와 같이 광수화 되어 갔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광수 소매를 원하는 일반적인 심리에서 기인된 것으로 기능성보다는 권위 의식의 표현이나 장식적인 효과로 의복의 형태를 만들어 나갔던 역사적인 소매의 변천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현대나 과거나 비록 시간적 거리감은 있으나 인간 욕구의 바램은 같은 것으로 맥락을 이을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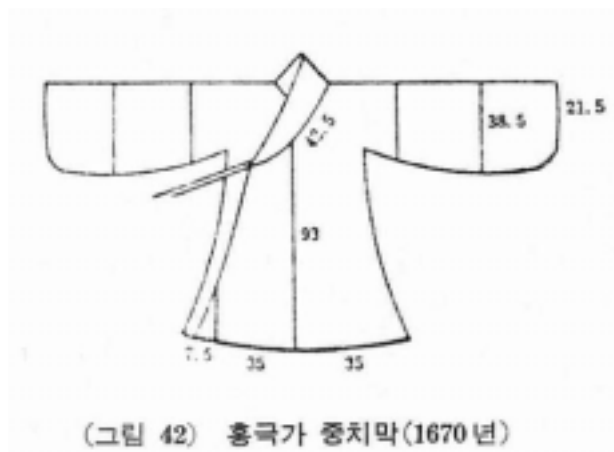
(그림 40) 홍진중 대창의(1702년)

(그림40) 홍진중 대창의 (17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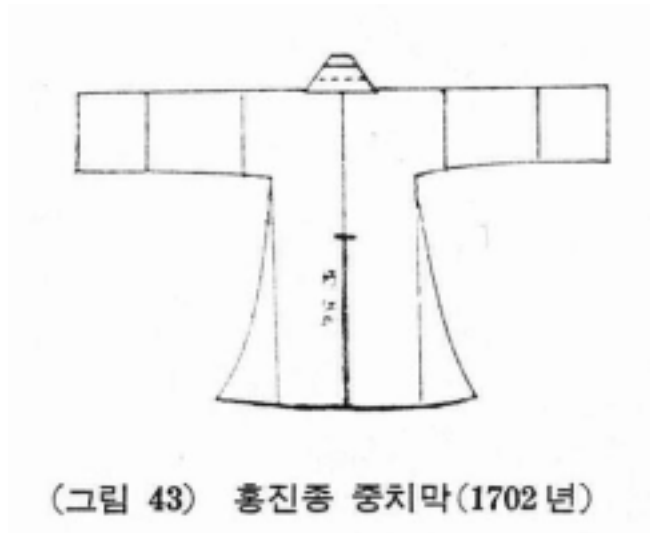
(그림 41) 김덕원 대창의(1704년)

(그림41) 김덕원 대창의 (17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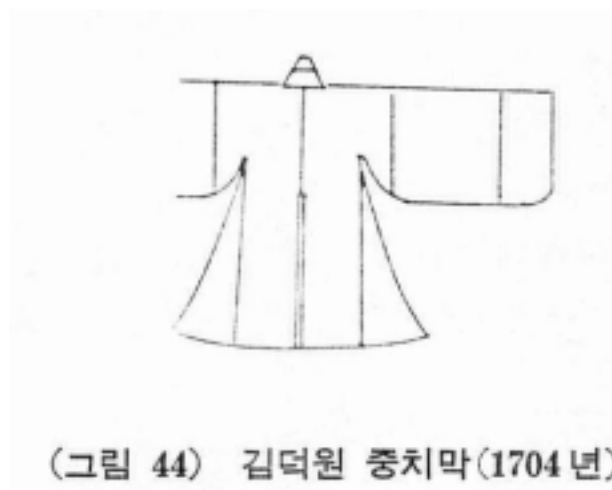
(그림 42) 홍극가 중치막(1670년)

(그림42) 홍극가 중치막 (1670년)



(그림 43) 홍진중 중치막(1702년)

(그림43) 홍진중 중치막 (1702년)



(그림 44) 김덕원 중치막(1704년)

(그림44) 김덕원 중치막 (1704년)

6. 도포(도포)의 소매

도포는 임란전에 생성된 것으로 선비의 상복으로 여겨 졌으며 중치막의 뒤에 전삼과 어깨에 한판(汗版)이 붙은 형태로 되어있다. 이 도포에 대한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조선 왕조 실록 선조(宣祖) 40년에 초록겹도포(草綠袂道袍)라고 한 것이 있으며, 효종실록(孝宗實錄)에는 임란 당시에 생성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⁰⁾ 또한 도포의 제도에 대하여 현종대 학자 이규경(李圭景)은

“우리 복식은 신라 태종 때 이래로 당제를 따랐고 고려때에도 중국제를 사용하였으며 원나라를 섬긴 후 호복(胡服)을 하였는데 이조에 와서는 중국제도를 사용하였으나 사서(士庶)는 천력을 입었는데 언제 천력을 폐지하고 직령을 입었는지 알 수 없다.”²¹⁾

라고 하여 이때 도포를 주로 입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 도포의 형태에 대하여서도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에는

“도포는 비스듬한 옷 깃에 양액은 봉합되고 후거(後裾)는 수직적이고 서로 가려지지 않는다.”²²⁾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뒤에 붙은 전삼(展衫)은 마상의(馬上衣)로 속옷이 보이지 않

20) 효종실록, 8년 1월 계축.

21)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도포 변증설.

22) 이규경, 오주연문장전고, 도포변증설.

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 도포의 소매는 조선 중기의 다른 포의 소매 크기와 비슷하리라고 보이며 다만 중후기에 들어서서 점차 활수화(闊袖化)되어, 국말에는 광수 소매의 일종으로 폐지되었다. 다음의 출토유물의 도포는 임란 전후의 것으로 전 박장군(傳 朴將軍)(그림 45)의 도포다. 진동이 24cm, 수구 28cm, 소매통 35cm로 이는 당시의 소매가 광수화되기 이전의 크기 정도로 동일인의 직령포의 소매와 같은 크기다. 또한 본인의 창의의 소매 형과도 비슷하며 크기 역시 별 차이가 없다. 이는 도포를 비롯하여 다른 포의소매가 비슷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에 홍극가(洪克加)의 도포(그림 46)는 거의 1세기 이후의 것인데 소매가 상당히 넓어진 광수형이다. 당시는 다른 포의 소매 역시 광수화되었던 것으로 보아 도포, 차의, 천릭의 소매는 서로 상관 관계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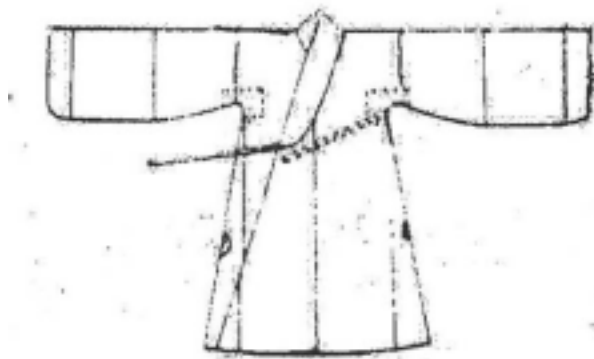
1700년대 말기의 도포는 혜원(蕙園)의 풍속화(그림 47)에서 묘사되는 것을 참고하면 이는 상당히 넓은 광수형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도포가 생김이래 계속하여 넓어져만 갔던 것으로 증명되며 이후에도 현종(현종)조에 이 도포가 상당히 관활한 것이었음을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현종때 학자 이규경(李圭景)의 복식재량 변증설(服飾裁量辨證說)에서 보통 사람의 필요한 식량과 의복 사용량을 제시하기를

“대창의 28척, 도포 33척, 겨울상의 18척”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대창의 보다 도포가 5척이 더 많은데 이는 전삼에 필요한 분량을 치더라도 결코 대창의 보다 작은 크기는 아니었으리라고 보며, 이 당시에 대창의의 광수 소매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도포의 소매 역시 광수였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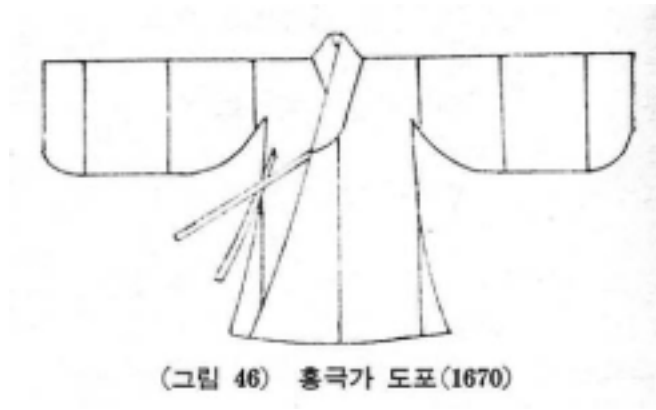
이러한 도포의 광수 소매는 국말의 도포(그림 48)에서 찾아 볼 수 있어, 이 도포의 소매는 계속 넓어져 가다가 국말에 폐지 되었다고 보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내의적(內衣的)인 포의 소매를 검토해 본 결과, 이 포들이 시작된 조선 중기에는 착수 었던 것이 점차 넓어져 가는 경향으로 국말까지 계속 되었으나 조선 초기부터 존재하던 천릭과 같은 포의 소매는 임란과 병자호란을 상한 선으로 같은 포의 소매는 크기가 좁아지다가 다시 넓어져 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대의 정치적, 사회 문화적 여건이 복식에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인간의 과시욕에 의한 것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그림 45) 전 박장군 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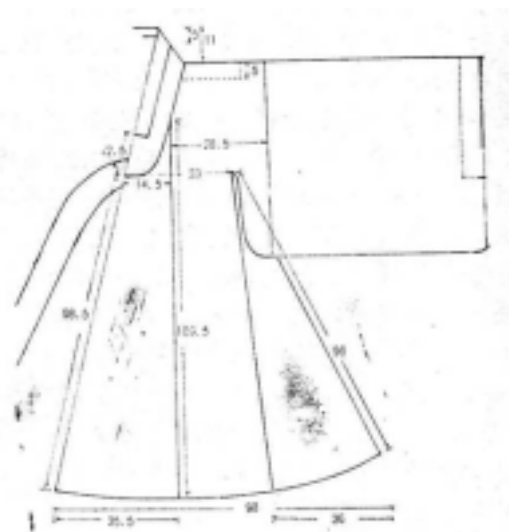
(그림45) 전 박장군 도포



(그림46) 홍극가 도포(1670)



(그림47) 1700년대 말 도포(혜원 풍속화)



(그림 48) 국말 도포(창덕궁 소장)

(그림48) 국말 도포(창덕궁 소장)

7. 반비의 소매.

이 반비는 고려의 소저반비(素紵半臂)(그림 49)로 그 형태를 알 수 있는데, 이 의복의 특
지은 소매가 짧다. 조선시대의 반비는 출토품이 대체적으로 길이가 긴 포의 일종으로 보
이나 중국의 당대(唐代)의 여자 반비는 가슴을 깊게 덮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이며,²³⁾ 남자의
농민복 반비는 엉덩이를 덮을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어 이 반비의 명칭은 소매의 길이에 의
하여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고려 반비와 17세기의 이천기(李天機)의 반소매 직령포, 18세기의 김덕원의 반비
포(그림 50)인 소매를 보면 모두가 짧은 소매로서 통수형으로 되어있다. 참고로 치수를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소저반비, 화장 46cm, 옷길이 111.5cm, 수구 30cm

이천기 반비, 화장 55cm, 옷길이 122.5cm, 수구 30cm

김덕원 반비, 화장 56cm, 옷길이 121cm 수구 30cm

이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적인 치수는 비슷하며 특히 소매의 수구 또는 소매 넓이
가 같게 되어 있어, 이는 시대적인 흐름은 있다하더라도 의복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도 보
인다.

이 소매통의 30cm의 넓이는 좁지도 않고 관활하지도 않은 넓이로 활동에도 적당한 크기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웃의 소매가 변하지 않았던 것은 다른 외의의 역할을
하였던 포의 성격과는 달리 기능성과 의복의 제도적(制度的)인 종류의 일종으로 존재 되었
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다른 포의 소매 역시 이와 같이 광수화되었던 시기로 시대적인 소매의 크기로 정립
되어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보아 도포, 창의, 천릭의 소매 모양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8. 구의(裘衣)의 소매.

구의는 원래 갑주(甲冑) 밑에 입는 의의(裏衣)로서 갑주와 비슷하게 앞이 전개형으로 생
겼는데 이 제도는 문종(文宗)때부터 중국에서 들어와 성종(成宗)에 이어 중종(中宗)때에 일
반화하여 사대부의 무인(武人)들이 입었다 한다. 이 구의에 대한 기록으로 보면 문헌통고(文
獻通考)를 빌어 정씨의 연번로에는

“갑옷이란 즉 지금의 도복과 같은 것이다. 도복은 깃을 비스듬히 하여 뒤 자락과 어울리
게 한것이고 지금 긴배자와 비슷한데, 다른 점은 배자는 양쪽 옆을 튀우고 갑옷은 양쪽 거
드랑이를 마주 꿰맸다.”²⁴⁾

라고 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갈포로 만들고 겨울에는 털로 만든다고 하여 털로도 만들어
입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구의에는 전박장군(傳朴將軍)의 소재면 구의(素色綿裘衣)(그림 51)와 남이홍(南以洪)
장군의 구의(그림 52)가 있는데, 이들의 소매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치수가 나타난다.

전 박장군, 진동 25cm, 수구 25cm, 화장 65cm

남이홍 장군, 진동 33cm, 수구 26cm, 화장 126cm

화장이 126cm로 긴 것은 긴소매와 짧은 소매의 차이이며 소매 넓이는 진동의 차이만 약
간 있을뿐 같다고 본다. 또한 갑옷을 입을 때 속옷으로 입었던 만큼 활동성을 위하여서는
그리 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3)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 p. 175.

24) 성호체설, 권 4, 만물문.

9. 주름포(注音袍)의 소매.

액주름포는 겨드랑에 무가 달려 주름으로 처리 되었으며 절개가 되기도 하여 이는 마상의(馬上衣)로서 기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몽고 질손(質孫)의 영향의 일종으로 보아지는 이포의 유물은 광주 이씨, 순천김씨(順天金氏)의 잔결(殘缺) 및 이언웅의 포가 남아있을 뿐 다른 것이 많이 존재하지 않아 그 뒤의 변화는 알 길이 없다.

이언웅의 액주름포(그림 53)는 진동이 38cm, 소매통이 같으며 수구는 26cm로 직배래에 통수형소매다. 이는 동일인의 다른 액주름포와 다른 소매형도 있어 당시의 다른포의 소매들과 같은 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0. 동달이 소매.

동달이는 군사복으로 소매와 몸판이 같은 식으로 되어진 것과, 다른 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다.(그림 54) 이는 한말에 답호(搭壕)와 같이 입어 관복이 되기도 하였으며 구군복(具軍服)으로 착용 되었다.²⁵⁾ 이 의복의 착용 성격에서와 같이 소매는 비교적 넓지 않으며 활동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다.

11. 심의의 소매.

심의는 중국 한대(漢代)에 시작되어 송대(宋代)에 선비의 편복(便服)으로 되었다가 이것이 고려에 전해져 선비사회에서 조선조까지 입었다. 이 형태는 상의하상(上衣下裳)으로 앞이 전개형으로 되어 있으며 후선으로 소매와 앞선, 옷의 밑단등에 대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²⁶⁾ 유물로 볼 수 있는 것은 홍진종(洪鎭宗)의 심의(그림 55)가 있는데 중국의 심의와 같이 이것도 소매가 상당히 관활하다. 이는 문사(文士)들이 덕망과 권위를 표시하는 예복으로 입었었기 때문에 넓은 소매가 되었으리라고 보이며 의복의 예를 표시하는 속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까닭에 소매의 넓이나 옷의 넓은 품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12. 기타의 포.

여기에 서술한 포 외에도 많은 포가 있다. 이 포중에는 여자의 예복으로서의

원삼(圓衫)

대삼(大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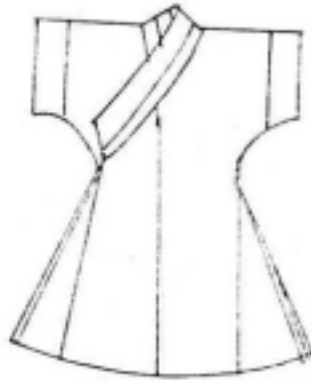
장옷과 왕비의 포로서

적의(翟衣)

등이 있고, 왕(王)의 여러 법복(法服)이나 신하의 여러 관복(冠服)의 포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여기서는 약한다. 이 밖에도 승복(僧服)으로서의 장삼(長衫)등이 있으나 또한 약하기로 한다. 이들은 소매 변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포를 거들었음을 밝혀둔다. <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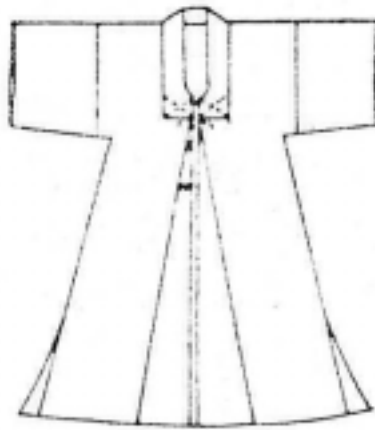
25) 이경자, 한국복식사논문, 일지사, 1983, p.226-233 참조.

26)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대출판국, 1977, p.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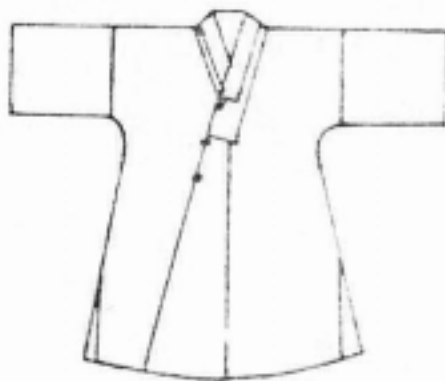
(그림 49) 고려반비(동국대학 박물관 소장)

(그림49) 고려반비(동국대학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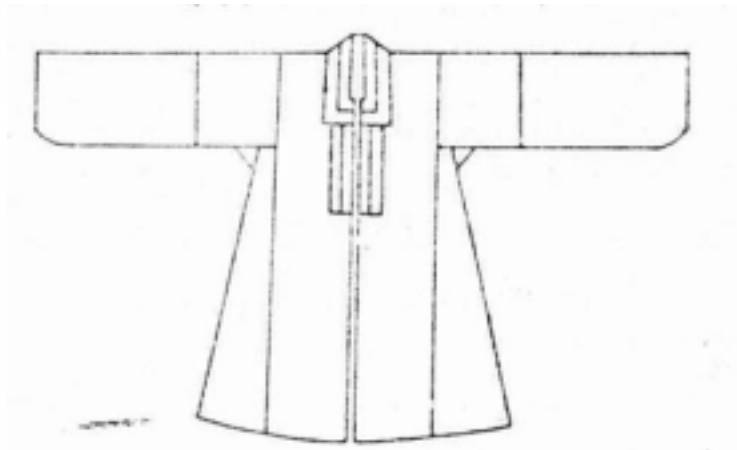
(그림 50) 김덕원 반비(1704년)

(그림50) 김덕원 반비(17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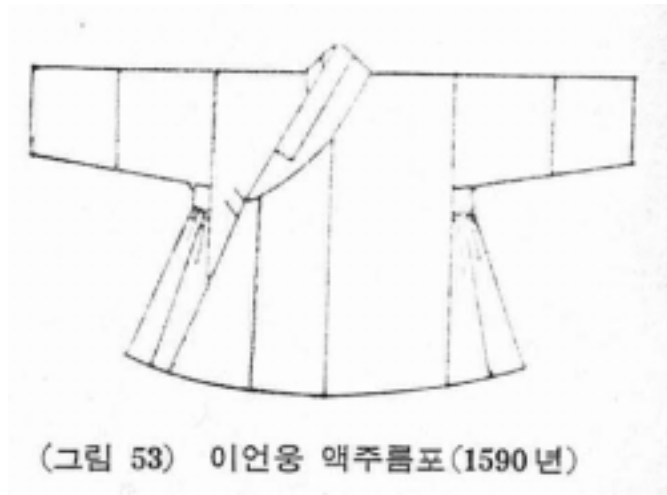
(그림 51) 전 박장군 구의(1592년)

(그림51) 전 박장군 구의(15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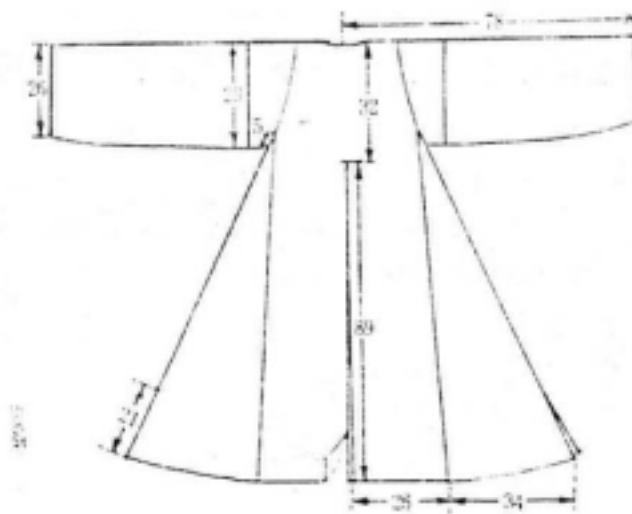
(그림 52) 남이 홍장군 구의

(그림52) 남이 홍장군 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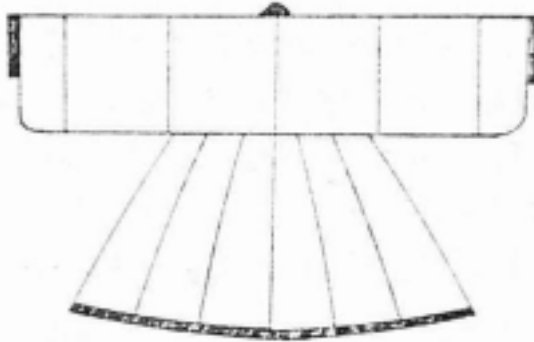
(그림 53) 이언웅 액주름포(1590년)

(그림53) 이언웅 액주름포(1590년)



(그림 54) 국말 동달이(고대박물관 소장)

(그림54) 국말 동달이 (고대박물관 소장)



(그림 55) 홍진종 심의(1702년)

(그림55) 홍진종 심의(1702년)

VI. 결 어

이상에 조선시대의 포를 고찰해본 결과 조선초기의 소매는 대부분 착수형이었으나, 시대의 사회적 여건에 따라 점차 변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포의 기본구조가 삼국시대 이래 그대로 이어져 왔으며 조선시대를 통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된 부분이 소매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조선시대의 포의 소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중국과 정치적 관계로 끊임없는 영향을 받았다. 이는 의식주의 생활조건에 다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에도 의복은 쉽사리 수용될 수 있는 물체로서, 가장 시각적으로 표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복과 위화감의 상징으로 이용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가 한복의 기본 형태에 변형을 가져오게 된 원인으로, 이는 중국적인 광수와 한복의 착수가 공존하게 된 것이라고 보겠다. 이뿐만 아니라 국속포로 착용되었던 내의 포 일종인 천력, 창의, 직령포, 중치막 등에도 광수 현상이 의외포 만큼이나 넓어져 갔음은 정치적인 지배를 받던 국가로부터 끼쳐진 원인이라고 보인다.

2) 비록 외래적인 요소에 의하여 광수 소매가 왕이나 관리들에 의하여 관복에 착용되었다 하더라도 국속포의 광수화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의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가 안정된 사이에서는 동, 서양을 막론하고 의복에 더욱 관심이 기울여지게 마련이어서 현재 상태보다 다른 형태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이 여유 있는 생활 조건에 따라 의복의 풍성함이 생겨진 것이라고 보인다.

이는 조선초기의 포가 대개 착수형에서 임진란 이전까지는 점차 넓어져 갔으나 임진란과 병자호란을 상한 선으로 착수량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소매는 작아졌음을 출토복식을 통하여 실증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소매는 커지기 시작하더니 고종 대에 이르러 복식개량이 선포되는 내용속에 특히 광수 소매를 지적하여 소매가 사치한 부분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또다시 광수포를 폐지하는 과정에까지 이르고, 결국 국속포인 두루마기를 착수로 하여 유일하게 현재까지 착용하게 되었다. 이는 시대적인 안정과 혼란에 따라 의복의 품이나, 소매의 크기를 제한한 것으로 사회의 상황과 경제적인 여건에 의하여 소매의 변화를 달리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의복은 인간에게 있어 제 2의 피부라고 할 만큼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도 이를 통하여 신분을 구별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복에 대한 인간의 장식성은 실로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시대, 그민족, 또는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미

(美)가 추구 되겠지만 이중에도 공통적인 요인은 자신을 타인에게 더욱 좋게 보이려는 욕망이라고 보겠다.

이러한 감정 작용이 다른 부분보다 소매에 특히 나타났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팔이 동적인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착수소매는 민첩한 기능성이 있으며 관활한 소매는 근엄과 여유와 너그러움을 느끼게하기 때문에, 전자는 활동복이나 서민의 의복에 주된 것이었고 후자는 권위를 나타내는 상층 계에서 주로 착용하였다.

이와 같이 의복의 크기는 규정이 없는 것이어서 자연히 상층계를 모방하려는 상향적 심리가 의복이라는 물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겠다.

또한 기능성보다는 장식적인 감정이 더욱 앞섰기 때문에 미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관활한 복식을 통하여 신체연장의 효과를 얻으려 하였고 이러한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의 환경적 조건은 이와 같이 풍성한 소매를 의복의 미로 삼았던데에 광수화에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조선시대의 의복의 미의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4) <표 3> 과 같이 조선시대의 포의 전개를 대표적인 예로서 천릭, 직령포, 소창의, 대창의 중치막, 도포등으로 나누어 양식적인 변화를 도표화 해 보았다. 여기서 직령포는 고구려의 포, 신라의 포, 고려의 백저 포를 이어 현재까지 한국 포로 잔존하고 있는 두루마기가 되었고, 천릭은 고려중기에 몽고의 질손을 수용해서 조선 전시대(全時代)를 입어온 것으로 직령포 보다는 관복쪽에 가까운 편복이었다. 이밖에 소창의 대창의 중치막, 등은 명초에 전래된 중단에 의하여 새로이 등장한 포이며, 도포는 한국포의 대표적인 포로 발전 시킨 것으로 사서인 간에 예의로 입은 포의(袍)였다.

이러한 포의 소매 선(線)을 고찰해 볼 때 그변화의 요인은 협수나, 직선배래나 곡 배래나에 있다고 보겠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포의의 명칭은 달라도 소매의 선의 모습은 시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590대의 천릭과 소창의와 도포의 소매는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 현재 그 소매 유품이 남아 있지 않는 대창의나 중치막의 소매도 그 선의 모양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1610년대의 천릭, 직령포, 소창의, 중치막의 소매 역시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1700년대 소매들은 약간 달라져서 직령포, 소창의, 중치막은 직배래형이고 천릭, 대창의, 도포등은 곡배래의 두리 소매형으로 광수화 한다. 이것은 중의로 입고있던 이런 포가 외의화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된다.

이로 보아 1700년대 말기 이후 대부분의 포의 소매는 광수로 갔다고 본다. 이는 고종 말기에 광수소매 포를 폐지 할 때 두루마기만 남기고 없어진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소매 변화가 많았던 것은 천릭이며, 소매 변화가 없었던 것은 직령포였다.

아울러 여기에 제시된 포의 유형은 출토복이나 실물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백을 많이 남겨놓았으나 앞으로 유물이 나오면 메꿀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전, 후시기를 비교 검토하여 이 공백기의 관계를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작업은 뒤로 밀기로 한다.

(1984年 2月 20日 日完)

<표 3>

時代別 소매 변화 표

袖의 종류 착용년대	선	리	직	명	포	소	상	의	대	장	의	중	지	막	도	로
1400년대 <악학계림>																
1540년대																
1580년대																
1590년대																
1596년대																
1618년대																
1704년대																
1840년대																
1900년대																

<표 3> 시대별(時代別) 소매 변화 표